

조형예술 Arts plastiques

조형예술 전공자들에게 열린 직업세계는 그야말로 다양하고 광범위하다. 광고, 그래픽과 출판, 비디오/멀티미디어 작품 설계 및 실현, 디자인이나 건축 사무소에서의 프로젝트 연구 및 수행, 인테리어, 예술작품 복원, 교육 등 수많은 분야에서 일할 수 있다. 또한, 화가, 조각가, 비디오 아티스트, 사진작가 등의 프리랜서 예술가를 양성하는 곳도 조형예술 학교이다.

프랑스에는 1,000여 개 이상의 예술학교가 있다. 이들 학교의 대다수는 국립학교 네트워크 또는 사립학교 네트워크 등에 대부분 망라되어 있다. 바칼로레아 통과 여부와 지원자들이 준비해온 포트폴리오가 입학의 필수조건이다.

프랑스 문화부는 건축부문과 마찬가지로 공통의 교수법과 교육과정, 학위체제를 가지고 있는 58개 국립 예술학교를 묶어 하나의 네트워크를 형성했다. 입학전형은 시험 형태로 진행되며, 이들 학교에서 수여하는 학위는 국가가 보증하는 학위들이다.

사립학교의 경우 입학은 시험 또는 면접으로 진행되며 수여 학위는 국가 직업인증 총람 RNCP(Répertoire National de Certification Professionnelle)에서 판정하는 수여학위와 직업레벨 인증으로 검증되어 있다.

외국학생도 프랑스 학생과 동일한 조건으로 학교에 입학할 수 있으며, 학비가 거의 무료이다.

입학자격

국, 공립 / 사립학교

학생선발은 입학시험(면접 및 포트폴리오 심사)으로 이루어진다. 입학시험에 응시하는 학생의 숫자가 많기 때문에 선발과정에서 경쟁이 매우 치열하다 : 작품 프레젠테이션 및 면접과정에서 자신의 작업을 설명하고 심사위원들을 설득하기 위해 응시생 대부분이 1-2년 간의 준비반을 거치고 있다. 입시에 성공하는 기본적인 요소는 예술작업의 질과 프랑스 어 능력, 심사위원을 설득할 수 있는 지원 동기이다. 입시 연령제한이 있는 것이 일반적이니 입학을 원하는 학교의 입시요강과 입시일정 등을 꼼꼼히 살피는 것이 필요하다.

예술학교 학장협회 사이트 참고 ANDEA(Association Nationale des

Directeurs d'écoles d'art) : 문화부 산하 58개 학교가 망라되어 있다. 국립학교의 경우 학비는 거의 무료이다(연간 200유로의 의료보험비 및 300유로의 부대비용만 지불). 사립학교들은 거의 대부분이 1년차 과정을 다른 국립학교 입학에 준비할 수 있는 준비반 형태로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학교에서 학업을 계속할 수도 있다. 이들 사립학교는 연간 5,000유로에서 10,000유로 사이의 학비가 있다. 주의할 것은 모든 사립 고등교육기관이 학생들에게 각종 사회복지혜택(대학식당, 사회복지, 집세보조 등)을 받을 수 있는 학생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정확히 알아봐야 한다.

<http://www.andea.fr>

교육기관 및 교육과정

국립 예술학교는 LMD(학사, 석사, 박사) 체제에 따라 교육과정이 나뉘어진다. 1학년 공통과정을 거친 후에는 단기 또는 장기 과정으로 들어갈 수 있다. 단기 과정은 2년의 DNAT(Bac+3, 예술 기술 학위) 과정으로 그래픽 디자인, 공간 디자인, 제품 디자인 세 가지 중에서 전공을 선택할 수 있다. 장기 과정은 2년의 DNAP(Bac+3, 조형예술학위) 과정과 2년의 DNSEP(Bac+5, 조형예술 표현 고등학위)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학교에 따라 예술,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세 가지 중에서 전공을 선택할 수 있다. 학기 중이라도 필수 학점을 모두 이수했을 경우에는 다른 학교로 옮길 수 있다. 교육과정은 그룹작업과 개인작업이 함께 이루어진다. 60여 개에 달하는 학교에서 수여하는 학위는 문화부의 교육규정에 따라 수여되며 국가자격을 인정받는다. 위 학교들은 보통 200여 명 정도로 구성된 작은 학교들이 대부분이다. 교수진은 이론과목 전문가(예술사, 인문과학)와 예술가로 구성되어 있다. 국내외 학교 인턴실습은 대부분 4년차 과정에서 이루어지며 대부분은 필수과정으로 정착되어 있다. 예술학교 전공과정 분야는 모든 예술 분야 및 미디어 분야의 전공과 연계되어 있으며 세계화 추세에 발맞추어 미래의 창작인력과의 교류에 앞장서고 있다.

각급 학교에서 수여하고 있는 학위들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학교 간의 수준차 비교를 위해 직업인증 국가위원회 CNCPE에서 평가하는 국가 직업인증 총람 RNCP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1레벨에서 5레벨까지). 이 총람은 기본적으로 각급 학교 졸업생들의 취업수준을 평가하는데, DNSEP는 총람의 1레벨과 동일하다. 학위 수여와 관련해 사립학교들은 마스터 Master 학위를 수여할 수 없다. 단, 대학과의 공동학위 등과 같은 특수한 경우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사립 예술학교는 직업세계에 바로 진입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있으며, 직업세계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교육과정은 대부분 짧지만, 최근 추세는 LMD 시스템에 부합하도록 교육기간을 늘려가고 있다. 사립학교의 경우는 졸업자들의 네트워크가 매우 공고하며, 인턴십 제공 및 취업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주의사항 1: RNCP에 등록되지 않은 사립학교의 전공과정들은 국가로부터 인증을 받지 못할 위험성이 높다. 일부 사립학교에서 발급하는 학생증은 국가가 제공하는 사회복지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사회보장, 보험, 학생식당 혜택, 집세 보조 등) : 관련 교육기관들은 앞으로 이 자료에서 언급되지 않음.

주의사항 2: 대부분의 학교들이 입학서류 제출 날짜를 앞당기고 있다. 이는 입시생들에게 좀 더 빨리 전형 결과를 알려주려는 의도이다. 매년 11월이 되면 우선적으로 학교 인터넷 사이트에서 입시관련 해당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주요 학교

■ 파리 국립고등 미술학교

(École Nationale Supérieure des Beaux-Arts-ENSBA)
일명 파리 보자르. 바칼로레아 소지자가 응시할 수 있으며 입학가능 연령은 만 18~24세, 2학년부턴 편입 제한은 최대 만 26세이다. 입학조건은 프랑스 학생이나 외국 학생 모두 동일하다. 사전입학허가는 개인작품과 시험으로 결정한다. 5년의 표준 교육과정으로, 이론교육(예술사, 미학, 예술 심리분석, 예술사와 이론, 인류학과 역사, 영화, 문학)과 기술교육(형태학, 그림 기법, 건축, 모형제작, 주형제조, 판각, 주조기술, 석판술, 실크스크린 날염, 프레스코화, 판화, 스테인드글라스, 사진, 컴퓨터/디지털 기술 등)이 병행된다.

프랑스 국내의 청년 작가를 위한 <라 센느 La Seine> 특별 프로그램: 매년 6명의 예술가를 선발하여 연구, 비평, 실험에 근거하여 개인의 기존작품을 완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2년 과정의 프로젝트이다. 이 프로그램에 지원하려면 석사 학위를 가지고 있거나 그에 준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최종 학위는 최소 1년 전에 취득한 것이어야 한다. 외국 지원자에게는 상당한 프랑스어 실력이 요구된다. <라 센느> 프로그램 1차 전형은 포트폴리오 심사로 이루어지며, 1차 전형에 합격한 학생은 예술계 인사로 구성된 심사위원단과의 면접을 거치게 된다.

<http://www.ensba.fr>

■ 국립고등 장식예술학교

(École Nationale Supérieure des Arts Décoratifs-ENSAD)

<http://www.ensad.fr>

■ 국립고등 산업디자인학교-레자틀리에

(École Nationale Supérieure de Création Industrielle(Les Ateliers)-ENSCI)

자세한 설명은 전공별 설명서 '디자인' 참고

<http://www.ensci.com>

■ 아를르 국립 사진학교

(École Nationale Supérieure de la Photographie)

아를르에 위치. Bac+2 소지자가 지원할 수 있으며 입학시험을 치른다. 3년의 교육과정을 마치면 국립 사진학교 학위가 수여된다. ENSP는 지식을 전수하고 고객의 주문에 충족하는 작품을 만들 수 있는 영상 전문인을 양성할 뿐만 아니라 연구원이나 창작인을 양성하기도 한다. 본 교육에는 두 가지 까다로운 요구 조건이 있는데 엄격한 기술 습득과 이론적 성찰이 그것이다. 다양한 형식의 수업/실습 프로그램과 국제교류 프로그램이 있다.

<http://www.enp-arlles.com>

프랑스 거주 학생 프로그램 : 자국에서 사진학위 취득자를 위한 1~2 학기의 연구 심화 과정이다. 개인 연구프로젝트를 실현하는데 필요한 기술적 지원과 지도를 학교에서 받을 수 있다.

■ 르 프레노와 국립 현대예술학교

(Le Fresnoy - Studio National des Arts Contemporains)

영상 및 음향을 사용하는 모든 예술분야에 대한 교육, 연구, 제작 기관이다. 우수한 학생과 젊은 아티스트를 선발한다. 교수로 초빙된 아티스트의 지도 하에 2년의 교육과정이 이루어지며, 지도 교수 역시 신규 프로젝트를 수행한다. 만 35세 연령제한과 4년의 고등교육을 마쳤거나 4년 이상의 예술분야 경력자에게 지원자격이 주어진다. 학생선발절차는 지원자의 선택에 따라 프랑스어나 영어로 진행된다. 또한, 단기 교환학생 프로그램이 있어서 무료로 숙소 및 기술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로마에 있는 아카데미 드 프랑스(Académie de France)나 파리의 ENSBA, 기타 외국 교육기관과도 협정을 맺어 활발한 교류 활동이 진행되고 있다.

<http://www.lefresnoy.net>

국립 또는 지역 공립학교 및 전공분야

프랑스 전국에 걸쳐 60여 개의 학교가 예술분야 또는 관련 분야 전공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일부 학교에서는 그래픽 디자인, 비디오 아트, 현대예술 또는 커뮤니케이션 분야 전공을 설치해두고 있다. 국립예술학교에서 제시하고 있는 전공분야 검색을 위해 각급 학교 학생들이 만든 기구인 ANDEA 사이트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http://www.andea.fr>). 이 사이트에는 입학시험 절차, 각 학교 주소 및 위치 등의 정보가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다.

대학

예술창작 또는 예술 행위와 관련된 전공은 국립/사립 여부를 떠나 각급 미술학교에서 담당하고 있다. 몇몇 대학에서는 예술 분야의 실용적 측면을 연구하는 과정이 설치되어 있다. 이 중에 파리 8대학 (Paris 8 Saint Denis, <http://www.univ-paris8.fr>), 파리 1대학 (Paris 1 Panthéon-Sorbonne, <http://www.univ-paris1.fr/UFR03et04>), 파리 동부 마르 라 발레 대학 (Paris Est Marne la Vallée, <http://www.univ-mlv.fr>) 등이 파리 지역에서 대표적이다.

대학에서 전공할 수 있는 미술관련 학문 분야는 그리 넓지 않으며 예술, 이론, 역사, 예술 경영 등 예술이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분야로 한정되어 있다. 예술 비평, 전시 큐레이터, 전문 기자, 문화관련 행정가 등의 진로를 생각한다면 미술 학교보다 대학에서 전공분야를 찾아야 할 것이다.

유용한 사이트

■ **CampusArt:** 미술분야 모든 전공에 대한 자료를 검색할 수 있다. 온라인 입학 지원 시스템은 매년 11월에서 익년 2월까지만 열려있으므로 날짜에 주의해야 한다.

<http://www.campusart.org>

■ **프랑스어권 예술학교 목록**

<http://www.ecoles-arts.com>

■ **문화부 웹사이트**

<http://www.culture.gouv.fr/culture/infos-pratiques/index.html>

■ **국립 조형예술센터**

<http://www.cnap.fr>



CampusFrance의 온라인 카탈로그에서 학사부터 박사까지 프랑스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교육과정이 상세히 소개되어 있다.

www.korea.campusfrance.org에서 << 전공별 학교 리스트 검색 >>이라는 검색엔진을 이용할 수 있다.

수학을 희망하는 카테고리를 선택한 후 (학사 Licence, 석사 Master, 박사 Doctorat) 키워드를 입력하면 해당 전공을 보유한 프랑스 학교 및 세부 전공을 검색할 수 있다.

■ 프랑스대사관 교육진흥원 CampusFrance 사이트 www.korea.campusfrance.org

■ 프랑스어 지원 사이트 www.campusfrance.org

■ 영어 지원 사이트 www.campusfrance.org/en